

건축설계산업의 불균형

Unbalanced Industry ; Architectural Design Services

재래시장이 급격히 쇠퇴하고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이미 아주 오래된 이야기다. 1990년대 말 유통시장 개방과 함께 처음 등장한 대형할인마트는 대량구매시 물품할인의 폭이 크다는 이점으로 소비자들을 공략하였다.

이후 조금씩 진화한 마트는 여러 가지 품목을 한 자리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점과 사계절 쾌적한 실내 환경, 넓은 주차장, 푸드코트 등 다양한 부대시설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면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왔다. 다양한 가격 이벤트와 기발한 마케팅 전략은 소량 구매자들까지도 공략하면서 이제는 동네 슈퍼와 구멍가게마저도 모두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동네슈퍼... 이 오래된 이야기는 우리사회 양극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우리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계층간 소득과 소비격차를 포함한 경제적 양극화뿐 아니라 주거지, 교육, 문화 등에 이르는 사회문화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건축설계분야도 이러한 현상에서 예외는 아니다. 최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발간한 한 연구보고서¹⁾의 건축설계 산업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그냥 막연히 짐작만 하고 있었던 건축사사무소간의 불균형 현상이 예상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건축설계 산업 부문에서 100인 이상의 대규모 사무소는 전체 사업체수의 7,463개소 중 55개소로 전체의 0.7%를 차지한다. 건축설계 산업의 2005년 총 매출 규모는 4조원이고, 이중 100인 이상의 대규모 사무소 매출액은 약 1.6조원으로 총 시장매출의 3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내용을 다른 수치로 비교해 보면 100인 미만 사무소의 평균 연 매출액은 3.8억원이고 100인 이상 사무소의 평균 연 매출액은 약 223억원으로 100인 미만 사무소의 약 60배에 달한다. 이를 다시 사무소 인원 1인당 매출규모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100인 이상 사무소의 1인당 매출액은 1억 8백만원, 100인 미만 사무소는 6,602만원으로 100인 이상 사무소의 수치가 1.6배에 달한다. 물론 위의 수치들이 순이윤이 아닌 단순 매출액만을 따진 산술적 수치이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0.7%의 사무소가 전체 시장의 38.7%를 독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에는 건축사사무소 규모별이 아닌 지역별 분포와 매출을 살펴보자. 2005년 건축설계 산업사업체수는 총 7,463개이며 이중 서울과 경기소재 사업체수는 각각 2,525개와 1,139개로 전체의 49.1%를 차지한다. 세 번째로 소재사업체 수가 많은 부산광역시 558개로 서울이나 경기도와는 차이가 급격히 난다. 종사자 수 또한 서울 28,288명과 경기도 6,166명으로 전체 53,587명의 64.3%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액은 서울 2조 6천억원, 경기도 3,16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4조여원의 73.2%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사업체의 매출액은 1,800억원으로 경기도 대비 57%, 서울 대비 약 7%로 그 차이가 매우 급격하다. 그러나 지역별 건설 공사액을 잠깐 살펴보면 서울, 경기도의 공사금액비율은 전체의 40.7%로 설계산업의 서울, 경기 매출액 비율 73.2%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서울, 경기의 건설집중도보다 설계산업매출 집중도가 훨씬 심각하며 다시 풀이하면 지방소재 프로젝트의 설계도 서울, 경기 소재 사무소에서 수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소라 / Kim, So-ra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약력

- R.A. in New York(뉴욕주 등록 건축사), AIA(미국건축사협회 정회원)
- Arcari & Iovino Architects PC, Project Architect
- Gwathmey Siegel & Associates Architects, Architect
- University of Pennsylvania, M. Arch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학사

물론 건축설계산업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은 설계시장의 사무소 규모별, 지역적 편중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면 건축설계 산업 종사자의 1인당 매출규모가 유사관련 산업인 도시설계, 조경, 엔지니어링 종사자의 1인당 매출규모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는 점이나, 해마다 설계산업의 매출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영업이익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점 등 타 산업과 비교하여서도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꾸준한 잠식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지역경제의 심각한 쇠락을 촉진시켜 시장 구조까지도 위협하듯이, 설계시장의 비정상적인 불균형은 곧 건축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화살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설계 산업 내에서 정해진 밥그릇을 놓고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나누기도 하고, 자체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설계 산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현명한 일일 것이다. ■

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산업동향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09. 06